

##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조성문\*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세국어 특수어간의 음운적 속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저형을 /namofi/과 같이 표면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형태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namo]~[namk]이 되는 과정을 자질 수형도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그래서 Avery & Idsardi (2001)의 “Dimensional Phonology”(차원 음운론)으로 성조와 음절의 연결 관계를 기술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teriade(1997)의 “어휘적 보수성”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특수어간의 교체현상에 최적성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 결과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형과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형 사이의 차이는 성조의 연결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형은 ‘저조+저조’의 단조로운 성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간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최적성이론으로 ‘\*Hiatus > Ident( $\mu$ ) > \*Complex > Max(C#)’의 제약 순위에 의해서 특수어간 교체형이 출현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곡용이나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모라를 준수하려는 Ident( $\mu$ ) 제약과 어간의 두 번째 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자음군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Complex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했다.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모라를 준수하려는 Ident( $\mu$ ) 제약과 모음충돌을 막으려는 \*Hiatus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방언으로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Ident( $\mu$ ) > \*Complex > Max(C#) > \*Hiatus > Dep-IO’의 제약 순위에 의해 2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형태가 나타났음도 증명하였다.

주제어: 중세국어, 특수어간, 차원 음운론, 어휘적 보수성, 최적성이론

\* 한양대학교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나모~남(木)”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자음과 모음의 교체를 보이는 중세국어 특수어간에 대한 음운적 속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 현상을 다루어 왔고 특히 음운론과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연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어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한 뒤 교체의 요인과 음운적 속성을 새롭게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교체현상을 지배하는 제약을 설정하여 이전 연구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저형을 /namɔh/과 같이 표면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이는 형태로 구성하고 이 기저형에서 [namo]~[namk]이 되는 과정을 자질 수형도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Avery & Idsardi(2001)의 “차원 음운론”(Dimensional Phonology)을 도입하여 성조와 음절의 연결 관계를 기술한다. 중세국어의 특수어간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에 차원 음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려는 이유는 이 이론이 그 동안 형태론적인 특성과 음운론적인 특성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적절성을 국어에서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특수어간의 교체 현상에 최적성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한다. 최적성이론은 구조주의를 대체한 생성이론이 지켜온 기본적인 틀에서 탈피하고자 시작된 점에서 새로운 언어이론을 개척하는 이론이다. 이제는 모든 언어의 분석에 이용될 정도로 일반화되었는데, 최적성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규칙 기반의 언어이론을 탈피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동안 사용하던 규칙, 제약, 규약

등을 모두 제약으로 통일하여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표면형 후보 중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이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음운론과 형태론의 통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음성학, 통사론, 의미론뿐만 아니라 언어습득, 역사언어학, 방언학 등에서도 폭넓게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최적성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Steriade(1997)의 “어휘적 보수성” 개념을 도입하고, 중세국어 특수어간이 현대국어의 방언에 따라 분화한 현상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선행 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용언 어간은 단일형을 기저형으로 갖는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의 중세국어 문헌을 살펴보면 체언 및 용언 어간에서 단일한 기저형을 보이지 않았다. 즉, 뒤에 오는 조사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실현되는 형이 달랐던 것이다. 하나는 음절말 자음을 갖지 않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말 자음이 두 개로 실현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최초로 지적한 것은 이기문(1962)이었는데 이를 특수어간 교체라고 명명하였다. 체언의 특수 어간형을 4가지 부류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가. 나모~남(木)
- 나. 노르~놀○(獐)
- 다. 믈르~물르(棟)
- 라. 아스~앞○(弟)

이와 같은 특수어간 교체현상은 체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용언의 어간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용언의 특수어간 교체형은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류로 나타난다(이기문 1962).

- (2) 가. 시므-~쉬-(植)  
 나. 다르-~달○-(異)  
 다. 모르-~몰르-(不知)  
 라. 빻스-~봇○-(碎)

체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용언어간은 보통 하나의 단일형을 보이는데 위에 제시한 유형들은 중세국어 당시에 뒤에 오는 어미의 종류(자음, 모음)에 따라 두 개의 어간형을 보인다. 즉, 체언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음절말 자음을 갖지 않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음절말 자음이 두 개로 실현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예시한 특수어간의 교체에 대한 연구는 Ramstedt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이기문(1962)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언과 용언에서 각각의 4가지로 분류만 해 놓았을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고대국어의 재구형을 제시해서 음절말의 자음과 모음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탈락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위의 4가지 유형 분류는 표면적인 형태에 의한 편이상의 분류이므로 음운적인 일반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구체적으로 보면, (1나)과 (1라)이 모두 ‘○’으로 끝나는 자음을 가진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로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첫 번째 (1가)은 음절말음을 이룰 수 있는 자음의 연속체이고 나머지 세 개는 그렇지 못한 차이를 보일 뿐이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시야를 넓혀 보면 모두 동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음절말 자음군

의 마지막 자음은 기원적으로 하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고영근(1987), 박병채(1989), 안병희·이광호(1990), 민현식(1996), 광충구(1994, 2000), 김동소(2002) 등에서는 이 특수어간 교체 현상을 문법적으로만 살펴보거나 방언학적으로 다루고만 있고 음운론적인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반면 박중희(1997)에서는 이기문(1962)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절구조제약 및 운율허가원리에 의해 음절말 자음을 부동음으로 처리해서 특수어간이 두 가지 교체형으로 나타난다고 추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처럼 중세국어의 자료에 한정하여 본격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기문(1962: 126-127)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여주는 형들이 모두 성조가 같다는 점이다. 즉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모든 체언 어간의 첫 번째 형태(나모, 노르, 므르, 아스)는 다 예외없이 성조가 ‘저조·저조’(평성+평성)인 것이다. 이 점은 용언 어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견해는 김무림(2004)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지 않는 ‘즈스’(核)과 같은 형은 성조가 ‘저조·고조’(평성+거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3) 가. 즈·스는(圓覺經諺解 上1之2:180)  
 나. 눈즈·식(蒙山法語諺解 25)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체언은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여주지 않고 언제나 단일한 어간형 ‘즈·스’를 가질 뿐이다. 이 어간과 특수어간교체를 보여주는 형 사이의 차이는 그 성조에서만 발견된다. 즉 ‘즈·스’는 그

성조가 저조와 고조의 연속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형과 그렇지 않은 형의 성조의 모습은 다음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성조가 없어져서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중세국어에서는 성조가 음운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변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변별성을 특수어간 교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한 자료의 탐구와 논의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4) ㄱ.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형: 저조(평성)+저조(평성)  
 ㄴ.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지 않는 형: 저조(평성)+고조(거성)

그런데 박종희(1997)에서 음절말 자음을 부동음으로 본 것은 국어의 음절구조 특성상 적절하지 않은 해결책이며, 실제 논의도 불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용언의 특수어간의 경우는 이해가 불가능한 6개의 유성음화규칙을 끌어들이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본 현상의 원인 설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5) ㄱ. 유성음화규칙 1  
 $k : g \Leftarrow V \_ V ;$   
 ㄴ. 유성음화규칙 2  
 $k : g \Rightarrow V \_ V ;$   
 ㄷ. 유성음화규칙 3  
 $k : g \Leftrightarrow V \_ V ;$   
 ㄹ. 유성음화규칙 4  
 $k : g / \Leftarrow C \_ V ;$   
 ㅁ. 유성음화규칙 5

- $k : g \Leftrightarrow V \_ \_ ;$   
 $\_ \_ V ;$   
 ㄷ. 유성음화규칙 6  
 $k : g \Leftrightarrow Vx \_ Vx ;$  where  $Vx$  in Vowel ;

이 규칙들을 2단계 규칙으로 명명하면서 대응 표시, 연산자, 환경 표시 그리고 수의적으로 배정된 변항 뒤에 놓여진 명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무성음 /k/가 유성음화되어 /g/로 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새로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 현상을 음운적 속성에 따라 재분류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성이론의 제약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제약의 설명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보려는 것이다.

### 3. 특수어간의 음운적 속성

체언의 특수어간 형은 4가지 부류로 실현되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이기문 1962).

- (6) 가. 나모와~남기  
 나. 노르와~놀이  
 다. 므르와~물리  
 르. 아스와~앞이

이들 비자동적 교체는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그 출발점을 알 수 있다.

(6ㄱ)의 ‘나모’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나목’이었는데, 휴지나 자음 앞에서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여 ‘\*나목>나모’가 되고 모음 앞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나목>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고대국어 시기에 (6ㄴ)의 ‘노르/놀○’는 ‘\*노록’이었고, (6ㄷ)의 ‘므르/몰리’는 ‘\*므룰’이었고, (6ㄹ)의 ‘아숙/얏○’는 ‘\*아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용언의 어간에서도 발견된다. 용언의 특수어간 교체 형은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4가지 부류로 실현되었는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이기문 1962).

- (7) ㄱ. 시므고~삼겨  
 ㄴ. 다르거늘~달아  
 ㄷ. 모르거늘~몰라  
 ㄹ. 밧스디~봧아

이들 용언어간의 비자동적 교체도 역시 통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출발점을 알 수 있다. (7ㄱ)의 ‘시므-/삼-’는 고대국어 시기에는 ‘\*시목-’이었는데, 휴지나 자음 앞에서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여 ‘\*시목>시므-’가 되고 모음 앞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시목>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고대국어 시기에 (7ㄴ)의 ‘다르-/달○-’은 ‘\*다록-’이었고, (7ㄷ)의 ‘모르-/몰리-’는 ‘\*모룰-’이었고, (7ㄹ)의 ‘밧스-/봧○-’은 ‘\*밧숙-’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의 음운적 속성을 분석해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음절말 자음이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즉, 네 유형의 음절말 자음 ‘ㄱ, ㅇ, ㄹ, ○’이 모두 ‘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다음과 같이 이기문(1962)에 제시되어 있다.

‘ㅇ’은 종래의 음운론적 해석에서는 문자 모양 그대로의 零(zero)로서 喻

ㅁ에 해당되는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진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 등을 자세히 읽어 보거나 그 당시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런 생각이 성립되기 어려움을 깨닫는다. 우선 15세기 중엽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이 ‘ㅇ’은 결코 ㄹ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많은 사실이 있음을 본다.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에서 ‘ㅇ’은 매우 적극적으로 정의되었다. 그것은 후음의 불청불탁으로 분명히 정의된 것이다. 또 해례 종성해에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라 한 것을 보면 종성 이외의 경우에는 ‘ㅇ’이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적극적인 증거로는 ‘oo’을 들 수 있다. ‘ㅇ’을 ㄹ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을 병서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ㅇ’의 적극적 기능은 어중에서의 ‘ㄱㅇ’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다. ‘알-’ (知)의 활용형 ‘알어늘, 알오’ 등에 있어서 ‘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ㅇ’으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늘, -고’ 등의 ‘ㄱ’ 없어졌다면 당시의 표기법의 규칙으로 보아 당연히 ‘ㄱ’이 내려와 ‘아러늘, 아로’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알어늘, 알오’에서 ‘ㄱ’이 앞 음절의 말음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음 음절의 첫머리에 자음이 있을 경우에 한하므로 ‘ㅇ’은 하나의 자음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어늘, -오’의 ‘ㅇ’의 자음적 기능은 다음의 예들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어미 ‘-거늘, -고’는 y 뒤에서도 ‘-어늘, -오’로 나타나는데 ‘뒤희’(動), ‘여희오’(離) 등에서 우리는 이 y의 영향이 ‘-오’에 미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이 영향이 미쳤다면 ‘-요’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사이에 자음이 있다고 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편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 사동형과 피동형의 ‘-오/우-’는 ‘뒤희’(使動)의 경우처럼 i, y 뒤에서도 절대로 ‘-요/유-’가 되는 법이 없다. 이것은 가령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 ‘-오/우-’가 ‘뒤희리라’처럼 i, y 뒤에서 ‘-요/유-

-'로 되는 것, 또는 부동사형 어미 '-아/어-'가 '뉘여'처럼 '-야/여-'가 되는 것과 대조된다. 전자에서는 인접음의 영향이 거부되었고 후자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었다. 전자에서 그 거부의 힘은 'ㅇ'의 자음으로서의 기능에 맡겨진 것이다.

여기에서 적극적 기능의 'ㅇ'을 하나의 자음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유성후두마찰음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음성적으로는 [ŋ](유성의 h) 또는 이보다 약한 음으로 실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극적 기능을 가진 'ㅇ'을 음소로 인정하면 그 분포의 편재성은 드러나지만, 15세기의 국어에는 이것과 매우 비슷한 분포의 편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ᄃ'과 'ᄆ'이 있었으니 'ㅇ'을 'ᄃ', 'ᄆ'과 같은 계열에 속하게 하는 것이 구조적 관점에서 매우 온당한 것으로 믿어진다. 이 세 음소는 그 음성적 특징에 있어서 유성마찰음이라는 서로 일치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도 이들은 그 발달과 소멸 과정에서 큰 유사성을 보여 준다.

적극적 기능을 가진 'ㅇ'의 환경과 그 예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 예들을 종합해 보면 음소 'ㅇ'은 주로 특수한 위치의 'ㄱ'에서 변화한 것으로, 이 변화는 대체로 13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8) r-v

## ㄱ. 명사 및 동사 어간

몰애(沙), 놀애(歌), 달애-(誘), 얼의(凝)

## ㄴ. 파생 어간

놀이-(使飛), 살이-(使住), 알외-(告)

## ㄷ. 합성어

골아마괴(寒鴉), 갈외(蟹螯)

## ㄹ. 곡용형

놀이(노르, 獐), 놀이(느르, 津)

- ㉔. ㄹ 말음 명사의 공동격형  
물와(水)
- ㉕. 활용형  
올아(오르-, 登), 달아(다르-, 異)
- ㉖. ㄹ 말음 동사의 활용형  
알오, 알아늘(知)
- (9) z-v
- ㉗. 명사 어간  
즈애(剪), 겹위(蚯蚓)
- ㉘. 파생 어간  
웃이-(使笑), 짓이-(使作)
- ㉙. 곡용형  
앗이(아스, 弟), 엿이(여스, 狐)
- ㉚. 활용형  
뵈아(벗스-, 碎), 굶어(그스-, 曳), 빚어(비스-, 扮)
- (10) y-v
- ㉛. 활용형  
드외오(드외-, 爲), 여회어늘(여회-, 離)
- ㉜. 계사의 활용형  
-이오, -이어늘
- ㉝. 파생 사동 어간의 활용형  
:다-(다-, 落)
- ㉞. 합성어  
비에(梨浦), 몰애오개(沙硯), ㄹ래올(楸洞)

한편, 15세기 문헌의 ‘ㄹㅇ’은 16세기 후반 문헌에서부터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5세기에는 ‘오르-’, ‘다르-’의 활용형이 ‘올아’, ‘달아’와 ‘흐르-’(流)의 활용형 ‘흘러’는 표기상 엄격히 구별되었는데, 16세기 후반에 오면 ‘올라’, ‘달롬’이 나타나 이런 구별에 혼동이 오게 된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이것이 일반화된다. 여기서 15세기의 ‘ㄹㅇ’이 ‘ㄹ르’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은 명사에서도 발견된다.

(11) 놀내(歌), 놀래(歌), 놀리(‘노르’의 주격형), 놀니(‘노르’의 속격형)

이들 표기의 ‘ㄹㄹ’, ‘ㄹㄴ’은 [ll]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18세기에 오면 ‘노래’·‘노리’로도 표기가 됨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ㄹㅇ’이 주로 [ll]로 발달하면서 [r]로도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ㄹㅇ’을 [ll]로 해석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15세기의 종성 ‘ㄹ’은 [l]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ㄹㅇ’의 ‘ㄹ’이 [ll]이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애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ㄹㅇ’의 ‘ㅇ’은 그보다 앞선 단계의 [g]에 소급한다고 보았는데 이 단계에 [\*lg]를 가정하면 이것이 더욱 약화된 것이 15세기의 [ll]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ll]의 소멸이 [ll]과 [r]의 두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물론 후음 ‘ㅇ’의 음가에 대한 논란은 있어 왔다. 우선 무음이라는 가설이다. 그에 관한 논의는 최현배(1961), 허웅(1965), 이성구(1985), 정연찬(1987)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ㅇ의 음운론적 위상은 ‘zero phoneme’ 또는 ‘empty phoneme’으로 규정되었다. 중세국어 당시 분철표기를 한 것은 형태론적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어원을 밝혀 적은 표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ㅇ’의 음가를 인정하는 가설이다. 대체로 성대진동음, 성문유음, 성문폐쇄음, 유성후두마찰음 등으로 파악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이기문(1961), 박중희(1983), 최임식(1989)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제안은 이기문(1961), 최임식(1989) 등이 제안하고 있는 유성 후두마찰음 설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ㅇ’의 음가는 ㅁ, ㅂ과 더불어 유성마찰음계열을 이루고 있다.

한편 ‘juncture phoneme’ 가설도 있다. 김완진(1971)에서 제안된 이 견해는 무음 가설과 유음 가설의 그 어느 쪽에도 포함시킬 수 없는 특이한 논의로서 문자론적 차원의 무음 가설이나 통시론적 접근의 유음가설과는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가 후음을 바라보는 입장은 ‘훈민정음’ 창제자의 관점에 서지는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후음 ‘ㅇ’은 하나의 음절이 모음이나 활음으로 시작됨을 나타내 주고 또 어중에서 두 모음 사이에 사용되어 각각의 모음이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함을 알려주는 것을 일반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제자들은 ‘국어의 모든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 체계 내의 음절합자의 원리에 따른다면 초성자는 필수불가결하므로 모든 위치에 후음 ‘ㅇ’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앞에서 특수어간 교체를 보여주는 형들의 마지막 자음은 모두 ‘ㄱ’이었다는 가능성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간 말 마지막 자음의 추상적 기저형을 [ŋ]로 설정해서 통합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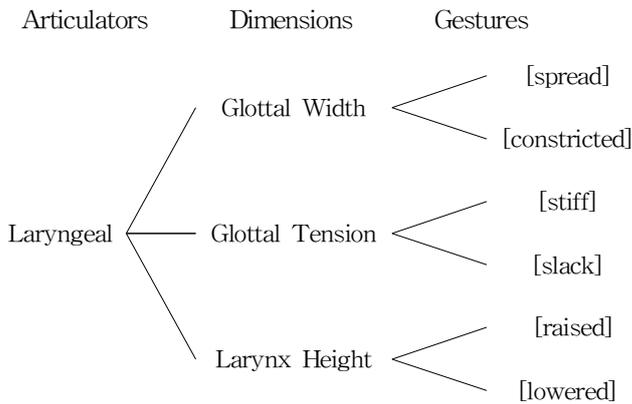
근대국어 시기에 오면 이 특수어간의 형태들은 비자동적 교체를 지양하고 어간의 단일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이 경향은 체언이나 용언 모두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2음절 모음이 탈락한 형태들은 사라지게 되고 음절말 자음이 탈락한 형태들로 단일화되어 비자동적 교체 현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이 두 형태들은 서로 경쟁하다가 중부방언에서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함경방언을 비롯한 일부 방언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 4. 성조와 음절의 연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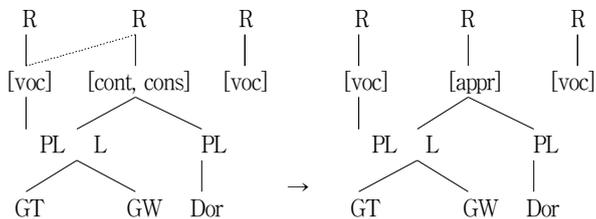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형들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조의 음절의 연결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지 않는 형과의 차이점을 Avery & Idsardi(2001)의 “Dimensional Phonology”을 도입하여 설명하려 한다. 이 이론은 후두(laryngeal) 부분의 표시를 세분하여 기존의 자질까지 포함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이론이다. 음성학적으로 관련 자질들 간의 대조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국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이미 많은 다른 언어에서 이 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Ahn & Iverson(2004)에서도 이미 국어에 이 이론을 적용하여 후두 부분에 관련된 음운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려는 성조와의 관련성도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하위 자질 표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여기에서 적용하려는 것이다. 차원 음운론의 후두 부분 표시는 다음과 같다.

(12) laryngeal representation in dimensional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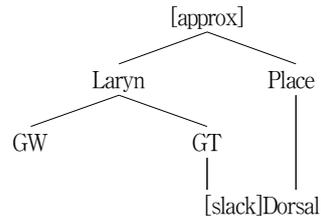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는 형의 음절말 마지막 자음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기저형은 중세국어 시기 이전에 후두 자질과 위치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 그 기저형이 유성적 환경에서 “자음 약화”를 겪어서 접근음(approximant)이 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자음 약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consonantal] 자질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R=root node, L=laryngeal node, PL=place node, GW=glottal width, GT=glottal tension). 그런데 Laryngeal node의 GT[slack] 자질은 [+voiced]와 [+High-toned]에 해당한다. 반면에 GT[stiff] 자질은 [-voiced], [-High-toned]에 해당한다(Ahn & Iverson 2004).

(13) 자음 약화(중세국어 이전)



위의 수형도는 유성적 환경의 높은 공명도 때문에 /ㄱ/의 방법 자질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ㄱ/의 자음적 속성은 중세국어 시기에 오면 [approximant] 자질로 대체된다. 그러므로, 자음의 약화로 인해서 중세국어의 /ㄱ/의 음성적 속성은 유성후두마찰음인 [ɦ]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성후두마찰음은 유성화된 접근음, 즉 [slack] GT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GW는 [spread glottis]를 나타내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나타내지 않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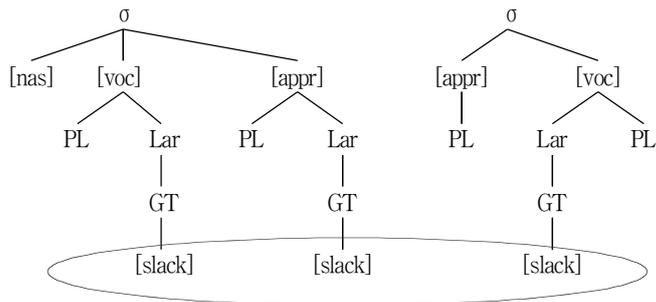
(14) 유성후두마찰음 [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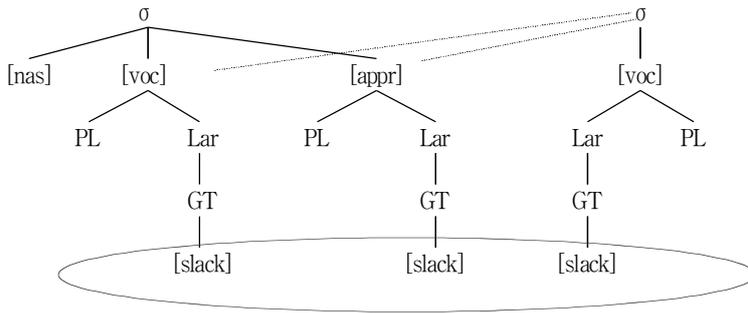
이 유성후두마찰음을 음절말음으로 갖는 특수어간 교체형의 어간은 뒤에 조사나 어미가 올 때 성조에서 ‘저조+저조’의 모습을 보이므로 GT의 자질이 [slack]으로 같아서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니까 비자동적 교체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모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5) 특수어간 교체형

- ㄱ. 나목+와 → 나모와  
namok[ɦ]+wa



- ㄴ. 나목+이 → 남기  
namok[ɦ]+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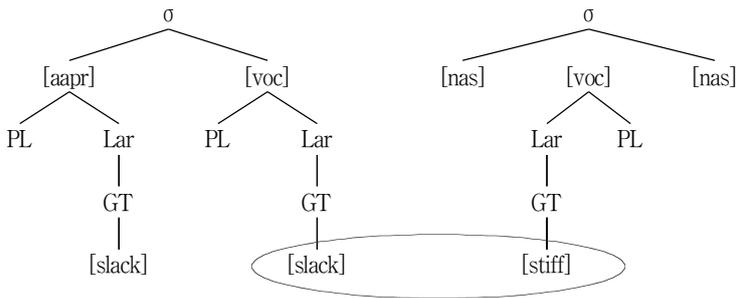


반면에 일반적인 어간이 곡용이나 활용을 할 때는 ‘저조+고조’의 모습을 보이므로 GT 자질이 [slack]+[stiff]이므로 충돌하게 된다. 그래서 성조가 단조로운 모습이 아닌 상승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특수어간 교체를 보이지 않는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 일반적인 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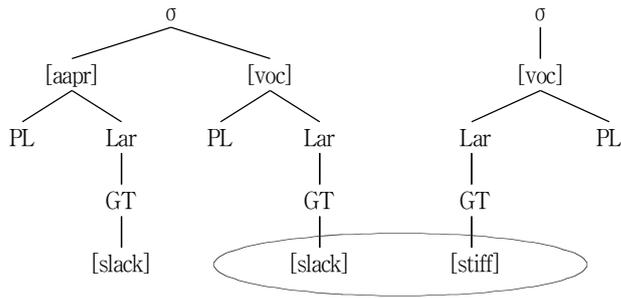
ㄱ. 즈스+는 → 즈스는

cɔzɔ+nin



ㄴ. 즈스+이 → 즈식

cɔzɔ+i



이상으로 볼 때,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형들은 성조의 모습이 ‘저조 +저조’로 단조롭게 실현되다 보니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간을 교체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해결 방안이 과연 국어에서 타당한가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언어에서 적용되어 설명되고 있고, 기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것을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설명 방법이 과연 언어 보편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5. 최적성이론의 적용

최적성이론으로 이 특수어간 교체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Steriade(1997)의 논의를 도입하려고 한다. 어휘형성과정에서 표면에 쓰일 수 있는 최적의 형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 제약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Steriade(1997)에 의하면, 어간의 변이형태소와 다른 새로운 변이형태소를 생성할 수 있는 음운현상을 적용해야 할 경우, ‘어휘적

보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 음운현상이 저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화자가 가능하면 이미 어휘부에 등록되어 있는 형태를 사용하고자 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어휘변화의 결과가 서로 상반된 두 축이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변이 형태소를 만들지 않는 보수성도 적용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어휘형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 언어 사용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금지 제약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어휘적 보수성을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5.1. 중세국어의 경우

중세국어의 특수어간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Steriade(1997)에서 제시한 제약을 새롭게 수정하여 다음과 같은 충실성 제약을 제시해 보았다.

#### (17) 충실성 제약

- ㄱ. Max(C#): 형태소  $\mu$ 의 해당 변이형태소의 마지막 자음 C는 이미 등록된  $\mu$ 의 변이형태소에서 대응하는 C'를 가져야 한다.
- ㄴ. Ident( $\mu$ ): 변이형태소의  $\mu$ 는 등록된 다른 변이형태소의  $\mu$ 와 일치해야 한다.

(17ㄱ)은 어간의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막으려는 충실성 제약이고, (17ㄴ)은 활용할 때 어간의 자음이나 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남게 되는 경우  $\mu$ (모라)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막으려는 충실성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활용할 때 어간의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모음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그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유표성 제약을

제시할 수 있다.

(18) \*Hiatus: 모음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활용할 때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자음군이 생성되게 된다. 그때 그 자음군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제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9) \*Complex: 음절은 가장자리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제약들의 순위는 (2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Hiatus > Ident( $\mu$ ) > \*Complex > Max(C#)

이제 위의 (20)의 제약 순위로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체언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21) 체언

ㄱ.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등록된 변이형태소: [namo], [namk])

*namoŋ+wa	*Hiatus	Ident( $\mu$ )	*Complex	Max(C#)
a. namokwa		*!	*	
b. namkwa			*!	
☞c. namowa				*

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등록된 변이형태소: [namo], [namk])

*namoŋ+i	*Hiatus	Ident( $\mu$ )	*Complex	Max(C#)
a. namoki		*!		
☞b. namki			*	
c. namoi	*!			*

(21ㄱ)에서는 후보 c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b는 \*Complex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보 c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여 Max(C#)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모두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21ㄴ)에서는 후보 b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c는 \*Hiatus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보 b는 제2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여 \*Complex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이번에는 용언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이 경우도 체언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2) 용언

ㄱ.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등록된 변이형태소: [simi], [simk])

*simifi+ko	*Hiatus	Ident( $\mu$ )	*Complex	Max(C#)
a. simikko		*!	*	
b. simkko			*!	
☞c. simiko				*

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등록된 변이형태소: [simi], [simk])

*simifi+ə	*Hiatus	Ident( $\mu$ )	*Complex	Max(C#)
a. simikə		*!		
☞b. simkə			*	
c. simiə	*!			*

(22ㄱ)에서는 후보 c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b는 \*Complex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보 c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하여 Max(C#)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모두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22ㄴ)에서는 후보 b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었다.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c는 \*Hiatus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보 b는 제2음절의 모음이 탈락하여 \*Complex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 5.2. 방언의 경우

특이하게도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이상규 2003).

- (23) ㄱ. 중부 방언: 나무  
    ㄴ. 일부 방언: 남그, 낭그, 남구, 낭구

이러한 현상은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던 두 형태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중부방언에서는 음절말 자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일부 방언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한 형태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부방언과 달리 (23ㄴ)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방언들은 음절말 자음을 탈락시키는 대신 삽입모음 /으/를 넣어서 국어의 음절구조 특성을 지켰다고 볼 수 있다.

최적성이론의 제약으로 이러한 방언의 변화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제약 순위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의 제약 순위에서 \*Hiatus가 아래로 내려가면 이러한 방언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 방언형들서는 모음 충돌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삽입모음 현상에 상대되는 다음과 같은 충실성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 (24) Dep-IO: 출력형의 모든 분절음들은 입력형에 대응소가 있어야 한다.

이 (24)의 제약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최하위에 두어 방언의 제약 순위를 구성하면 다음 (25)와 같다. 이것을 (23ㄴ)에 적용시켜 보면 최적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25) Ident( $\mu$ )  $\gg$  \*Complex  $\gg$  Max(C#)  $\gg$  \*Hiatus  $\gg$  Dep-IO  
 (26) 방언의 경우

ㄱ.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namofi+wa	Ident( $\mu$ )	*Complex	Max(C#)	*Hiatus	Dep-IO
a. namokwa	*!	*			
b. namkwa		*!			
☞c. namkiwa					*
d. namowa			*!		

ㄴ.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namofi+e	Ident( $\mu$ )	*Complex	Max(C#)	*Hiatus	Dep-IO
a. namoke	*!				
b. namke		*!			
☞c. namkie				*	*
d. namoe			*!	*	

(26ㄱ)에서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b는 \*Complex, 후보 d는 Max(C#)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다. 반면에 후보 c는 2음절의 모음을 탈락시키고 삽입모음을 넣어서 Dep-IO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모두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26ㄴ)에서는 후보 a는 Ident( $\mu$ )를, 후보 b는 \*Complex, 후보 d는 Max(C#)를 결정적으로 위반하였다. 반면에 후보 c는 2음절의 모음을 탈락시키고 삽입모음을 넣어서 \*Hiatus, Dep-IO를 위반하였지만 상위의 제약들을 모두 준수하여 최적형이 되었다.

## 6. 결론

지금까지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 현상을 Avery & Idsardi(2001)의 “Dimensional Phonology”으로 성조와 음절의 연결 관계를 기술하였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teriade(1997)의 “어휘적 보수성”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특수어간의 교체현상에 최적성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 결과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형과 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형 사이의 차이는 성조의 연결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특수어간의 교체를 보이는 형은 ‘저조+저조’의 단조로운 성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간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최적성이론으로는 ‘\*Hiatus  $\gg$  Ident( $\mu$ )  $\gg$  \*Complex  $\gg$  Max(C#)’의 제약 순위에 의해서 특수어간 교체형이 출현하였음을 증명하였다. 곡용이나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마지막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모라를 준수하려는 Ident( $\mu$ ) 제약과 어간의 두 번째 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자음군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Complex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했다.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모라를 준수하려는 Ident( $\mu$ ) 제약과 모음충돌을 막으려는 \*Hiatus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 현상은 입력형의 모라를 지키려는 노력과 모음충돌 및 자음군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의 변화도 살펴보았는데 ‘Ident( $\mu$ )  $\gg$  \*Complex  $\gg$  Max(C#)  $\gg$  \*Hiatus  $\gg$  Dep-IO’의 제약 순위에 의해 2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형태가 나타났음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을 지키려는 특성은 같

으나 중부방언과는 다르게 모음을 삽입하여 나타난 변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투 고 일:	2009년 3월 28일
심사개시일:	2009년 4월 20일
심사완료일:	2009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2009년 5월 10일

## 참고문헌

### <단행본>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동소(2002), 『중세한국어개설』, 한국문화사.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중희(1983), 『국어 음운론 연구』, 원광대 출판부.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안상철(2001), 『개정증보 최적성 이론의 언어 분석』, 한국문화사.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상규(2003), 『국어방언학』, 학연사.  
이성구(1985), 『훈민정음 연구』, 동문사.  
최현배(1961), 『한글갈(고친판)』, 정음사.  
허 응(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 <논문>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시적 기술」, 『관악어문연구』 13, 25-44쪽.  
곽충구(1994), 「강세 접미사의 방언형과 그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 북한지역의 방언자료를 중심으로 -」, 『선칭어문』 22, 1-25쪽.  
곽충구(2000), 「육진방언의 현장과 연구 과제」, 『한국학논집』 34, 327-362쪽.  
민현식(1996), 「국어 오용어법의 예방적 지도법 연구(2)」, 『국어교육』 91, 1-60쪽.  
박중희(1997), 「중세국어 특수어간 교체의 음운론적 해석」, 『국어국문학』 119, 1-28쪽.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 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121-153쪽.  
정연찬(1987), 「‘육자초발성’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16, 11-40쪽.  
최임식(1989), 「국어 내파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국외자료>

Ahn, Sang-Cheol and Gregory K. Iverson(2004). Dimensions in Korean laryngeal phonolog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3, pp. 345-379.

Avery, Peter and William Idsardi(2001). Laryngeal dimensions, copletion and enhancement, In *Distinctive Features(Proceedings of the 1999 Zentrum für Allgemeine Sprachwissenschaft(ZAS) Conference on Distinctive Features, Berlin)*, pp. 41-70.

Steriade, Donca(1997). *Lexical conservatism and its analysis*. Ms. UCLA.

조성문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mooni67@hanyang.ac.kr

<Abstract>

A phonological study on the alternation of the special stems in the Middle Korean

Cho SungMoon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provides a new analysis of the special stems alternation in the Middle Korean. The special stems has the various alternations in conjugations of consonant and vowel suffix. For this purpose, the framework of Dimensional Phonology(Avery & Idsardi 2001) is employed for a satisfactory analysis. Dimensional Phonology can account for the connection of tone and syllable as we need new inputs in this analysis. And then, employing the lexical conservatism of Optimality Theory(Steriade 1997), I will show how correct outputs can be obtained for the alternation of special stems in the Middle Korean. Finally, I will show the change of constraint ranking in the Comtemporary Korean dialect.

Key words: special stem, the Middle Korean, Dimensional Phonology, lexical conservation, Optimality Theory